



宗 訓

順天金氏中央宗親會

1. 崇祖 精神의 高揚
2. 宗族 和睦의 効行
3. 國家社會에 貢獻

제 40 호

2004. 2. 15 (목)

順天金氏中央宗親會 發行/發行人: 김종식/ 편집인: 김학원/ http://www.schkim.co.kr /138-839 서울특별시 송파구 삼전동 101-11호 부광빌딩 2층/전화: (02)400-2501~2502/FAX: (02)400-2505

新 年 辭



새 時代의 序幕이 열리는 希望찬 甲申年 새해
아침에 尊敬하는 宗親 각 家庭에 所望하시는 모든
일들이 成就되고 健康과 幸運이 充滿하시기를 祈願
합니다. 새해 아침 多事多難했던 지난 癸未年을 回
顧해 보면 어려운 與件 속에서도 宗親 여러분이 物心
兩面으로 宗會發展에 協助해주신대 對하여 깊이 感謝드립
니다.

오늘 새해 아침에 癸未年을 되돌아 보고 새로운 覺悟로 힘찬 발걸음을 내딛고
자 합니다. 癸未年은 우리 順天金氏가 累世토록 이루지 못한 上系 家乘에 對한
考證을 研究하여 氏族觀을 定立하였으며 이를 根幹으로 大同譜 編修業務을 成功
적으로 完了하였습니다. 感激하게도 族譜가 곧 頒帙過程에 있습니다. 各 支派門中
收單委員과 大同譜 編纂委員, 刊行委員, 元老宗親, 諸賢各位의 淨身의 勞苦에 盡
心으로 머리 숙여 讀辭를 드립니다.

그러나 宗事의 일은 生覺해보면 모든 宗事의 發展은 宗親간의 意見을 尊重하면
서 讀步의 美德속에 信賴를 構築하고 和合을 다지는 것이 가장 重要한 德目이며
和合없이는 宗會의 發展을 期約할 수 없음을 알았습니다. 今年 甲申年은 十二干
支 中 원숭이의 해로서 원숭이는 性質이 난령하고 재주가 있는 지혜로운 動物로
象徵되는 바 원숭이띠의 해를 맞아 時流에 맞게 運營의 妙와 讀步의 美德을 살려
中央宗親會가 크게 發展하여 一大轉機를 마련해 가도록 우리 모두가 努力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 癸未年에는 우리 宗會가 어려운 與件 속에도始祖 史蹟地 聖域化 事業을
持續的으로 推進하였으며 今年에도 各種 事業은持續되어야 하겠습니다.

中興祖 史蹟地 淨化에 對한 論議를 거쳐 첫번째 事業을 襄景公 墓域淨化事業
및 景德齋 重建 事業 等 計劃案을樹立하여 推進하고 있으며 今年 甲申年에는 本
事業을 有終의 美를 거둘 수 있도록 全 後孫이 最善의 勞力を 다하여야 할 것입
니다.

尊敬하는 宗親諸賢 우리는 祖上님의 崇德偉業으로 子孫들이 鴻儒相將이 이어나
서 美덕을 이어도록 德行家風을 남기여 주신 遺訓이 있습니다.

특히, 平陽府院君 謂襄景公할아버지는 아들을 五兄弟를 두셨습니다. 襄景公께서

는 아들 五兄弟 諱名을 첫字에 "有"字 끝字를 次例대로 溫, 良, 恭, 儉, 讓으로 달
아 諱名을 지으셨다. 鄭宗은 새해에 祖上님에 對한 德談을 말씀들이고자 합니다.
우리 家聲에 對하여 偉大하고 거룩하신 襄景公祖의 遺訓에 있어 讀頌 能을 수 없
습니다. 溫, 良, 恭, 儉, 讓은 孔子의 弟子 子貢이 말하기를 "孔子님의 日常生活에
다섯가지 德目이라 하셨다" 襄景公이 남기신 偉德과 勲業은 그 藤德이 後孫에게
이어져서 子子孫孫에게 琪花瑤草와 같이 아름답게 傳世되어 昌盛하고 名門華闈를
이루어 公卿이 代를 이어 輩出되어 顯達하였으니 어찌 祖上님에게 尊慕하지 않으
리오.

우리 後孫은 祖上님의 根本을 둘이켜 그 恩功을 깊어야 함은 人倫 道德의 精神
이 永遠不滅할 理想의 理致이니, 이제부터 우리 順金은 跳躍의 해, 甲申年이 되어
中興祖의 史蹟地 守護管理事業을 宗中的 元老宗親과 論議하여 規模있는 先後를
定하여 順序대로 為先事業을 推進할 것입니다.

그리고 癸未年 年未陰冬에 忠貞公 宗會가 構成되어 宗會長 以下任員들이 合心
하여 추운 季節을 不顧하고 順平君이신 忠貞公 墓域 淨化事業을着手하여 進行中
에 있음은 祝贺의 일이라 하겠습니다. 中央宗親會長으로써 깊이 敬意를
드립니다.

敬愛하는 宗親諸位께서도 부디 한 血統宗族으로 孝悌敦睦하는 教訓처럼 由緒깊은
順天金氏의 德行品性으로 大和合하여 人倫之 道理를 다하는 後孫다운 家和萬
事成을 根本으로하여 祖上崇慕하고 敬親愛族하는 해, 甲申年이 되기를 所望하며
恒常 家庭에 健康과 幸福이 가득하시기를 祈願합니다.

새해 福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2004년 甲申 元旦

順天金氏中央宗親會長

竹潭 金鍾植

알리는 말씀

오는 3月末경 신간 順天金氏大同譜를 반질(頒帙)하오니 양지하시고 本譜代金(貳拾萬원)의
豫約金을 제외한 잔금을 早速히 完拂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既히 族譜代金을 納入하신 宗親도 入金與否 확인 전화를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 02) 400-2501~2 족보편찬실

2004. 2. 10

順天金氏中央宗親會 白

신 바람난 연대리 공사장



지난 해 12월초 一金五百만원을 출연한 載俊 종회장은 같은 달 27일 巨金 1억원 ₩100,000,000 을 快擇하다 이는 모진 세파를 경험한 순천 김씨의 龍兒 재준 회장의 일대 거사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 鼓舞된 4명의 부회장과 총무, 재무, 유사 등이 뒤따라 一金八百만원을 희사하다. 이렇게 넉넉한 충정공 묘역공사 자금이 확보됨에 따라서 힘이 산솟는 春熙 수석부회장은 지난 구립 단숨에 경기도 여주군 가남면 연대리로 달려갔다. 이곳 충정공 묘소는 도굴꾼들 손에 훼손된지 이미 오래다. 더하여 지난해 여름 태풍 매미로 범람한 흙수에 훑싸여 떠내려간 용미와 끊어진 산허리는 한마디로 불성 모양이다. 어디부터 손을 대야할 지 읊씨년 스럽다. 때마침 찾아온 俊一 총무 東先有司와 더불어 팔을 걷어 올리고 15톤 트럭 1,000대 분량의 흙을 파들이고 나서 대형 포크레인 3대로 산더미 같이 쌓인 흙을 고르기까지의 10여일간, 때는 17년만에 닥쳐온 영하 17도를 오르내리는 혹한 속에 너무나 고된 일이지만 할아버지의 묘역을 원상 복구하는 보람에서 신바람이 났다. 그토록 엄청난 흙으로 성토한 만큼의 드넓은 묘역에 올 여름 장마를 사전 대비하기 위하여서는 잔디를 촨촘히 이식하는 것이 급선무다. 묘에서 약간 먼발치엔 光弘 부회장이 보내온 잣나무 묘목 300그루를 심고 묘 가

까이에는 나지막한 향나무, 호야나무 그리고 할아버지 字號가 梅塲라서 매화나무를 듬뿍듬뿍 심어서 아름답게 꾸민 동산에 아담한 재실을 時祀전에 반드시 준공하겠다는 載俊 회장의 굳은 의지엔 환호소리 드높다.

墓受難을 구해낸 두 血孫의 이야기

할아버지의 묘는 1454년 4월 4일 이곳 연대리에 禮葬하신 후 실전 403년이란 수난의 기막힌 세월 생각만 해도 몸서리가 난다. 천재 일우인가 할아버지는 13대손 膚範에 계시하여 李朝 哲宗 8년(丁巳) 1857년 심득적(尋得蹟)한 사실이 梅塲 金先生 神道碑文에 기록되었다. 그후 147년이 흐른 오늘날 황폐화된 묘역을 23대손 載俊을 선택하시어 治山과 묘역의 정화와 아울러 재실 건립의 영광을 안겨 준 것이다. 그러므로 재준 회장은 충정공의 충정공에 의한 충정공을 위하여 태어나 인생으로서의 마지막 열정을 불사르겠노라고 각오 또한 대단하다. 이즈음에서 충정공손 모두는 진실로 감사한 마음으로 동참 협력을 하신다면 未曾有의 忠貞公史를 謳歌할 수 있는 날이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2004년 2월 1일

20대손 명환 註

甲申年 新年賀禮會



順天金氏 中央宗親會는 2004年 1月 16日 12時 中央宗親會 會議室에서 鍾植 中央宗親會 會長을 비롯한 會長團과 榮熙 常任顧問을 비롯한 顧問團과 地域宗親會長 및 派宗會會長등 50여명의 元老宗親들이 參席한 가운데 수연종친의 사회로 新年賀禮會를 舉行하였다.

이날 賀禮會는 다음과 시루떡을 들면서 宗親相互間에 서로 德談을 주고 받으며 금년에는 좀더 敦睦하고 團合하여 宗親會 發展에 力을 다하자는 建設的對話로 시종 和氣 譲讓 가운데 賀禮會를 마친뒤 午餐을 함께하고 아쉬움을 남긴체 해산하였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甲申年에 하고 싶은 말

先榮後敗

다른 사람보다 먼저 영화로우나
나중에는 패 할 것이다.

先憂後樂

다른 사람보다 먼저 근심 걱정하여도
나중에는 즐거워 할 것이다.

南江 金 榮 熙 拜

金相洪교수에 茶山학술상

2003년 12월 27일

김상홍(金相洪 - 한국 한문 학회장)

단국대 교수(順天金氏 37世孫)가 다산학술 문화재단<이사장 정해창>01 수여하는 다산학술 수상자로 선정되어 수상하였음.

訃音

◆ 副會長 振聲氏 大夫人 慶州李氏 2004년 2月 16日 以老宿患別世

◆ 宗親 漢哲氏 王大夫人 清州韓氏 2004년 2月 18日 以老患別世

위 두분의 冥福을 빕니다.



頌 九潭 集姓村

韓半島의 脊椎인 太白山이 南으로 힘차게 뻗어 小白山脈을 이루고 連山 連峰이 이어내려 洛東江을 만나는 곳에 奇麗한 花山이 東으로 솟아있고, 洛江이 南으로 휘감아 돌아 河回를 거쳐 흘러내려 江옆 넓은 벌은 九潭 江南 平野를 이룬다. 連山이 奇麗한 蓮花처럼 이어 맷힌 곳에 松柏이 茂盛하게 들려 쌓여 있어 아름답다함이 부족하여 嘉尚함을 느끼게 한다. 至今으로부터 約 四百餘年前 朝鮮朝 太·世·文·端 廟朝까지 四朝에 걸쳐 著名한 禮學者이신 順天金氏 顯祖 謙有溫 菊潭公께서 時代의 어지러움을 이미豫測하시고 聰父 権監司 執經을 따라 落鄉하신 곳이 바로 이 九潭村이다. 謂官하고 이곳에 隱居하면서 時代를 懇望하지 않고 삶의 家難을 겪어도 慨慨히 여기지 않으셨다는 이야기가 譜牒에 실려 있는 事實을 公의 神道碑銘에서 볼 수 있으니 公께서는 이곳 九潭에 後日의 基業을 열어 놓은 祖上이 되셨다.

그 옛날 이곳에는 用水가 부족하여 한 老父가 아들과 함께 水源을 찾아 이곳저곳 여러 곳을 파보았으나 물은 아니 나오고 일곱 번째 웅덩이를 파다 그의 아들이 흙더이에 찰려 죽었다고 한다. 그러나 그 老父는 슬픔을 뒤로 하고 다른 곳을 또 파보았으나 역시 虛事였다. 그날 밤 꿈에 한 白髮老人이 나타나 “저 위 古木나무 옆으로 百步 떨어진 곳에 웅덩이를 파보아라”하여 다음 날 아홉 번째로 꿈에 나타난老人이 가리킨 곳을 팠더니 반갑게도 물이 쏟아졌다 한다. 그 후 그 마을을 구담(九潭)이라 부르게 되었다 한다. 그러나 어렵게도 오늘날 그들 웅덩이는 찾아 볼 수가 없다.

이곳 九潭 앞 江南平野의 벌판은 넓고도 茫茫하였으나 당시만 해도 農事를 지을 물은 한 곳에도 없었고 洛東大江은 洞口밖으로 흐르고 있으나 水利施設이 發達되지 않은 時代라 用水처 못하고 家難과 凶年은 거듭하였다. 그러하니 生計를 爲한 苦衷는 얼마나 크셨을까!

考位이신 裹景公께서는 아들 五兄弟의 名字를 有字에 溫, 良, 恭, 儉, 讓으로 지어 孔子의 人品을 들어내는 다섯 가지 德目을 차례대로 하여 志向했던 理想의 人間像을 後孫들에게 본받도록 하셨다고 한다. 公께서는 그 遺志를 받들어 어려운 苦難 속에서도 禮를 根幹으로 하고 胃孫으로서 世族의 家聲을 지키고 子孫永世繁盛도록 九潭에 터를 열어 世爲樹人으로 子孫 世居地로 삼도록 하셨다. 公으로부터 이어지는 顯達하신 祖上이 많이 계시어 國家에 報國忠節하고 儒賢相將이 代를 이어 나왔으니 順金의 자랑이 오 後孫들이 머리숙여 祖上의 崇德偉業을 敬慕할 일이다.

公은 三男二女를 두셨는데 長男 謙元石은 判事로 贈 戶曹參議이고 次子 謙亨石은 翟贊으로 贈 戶曹參議이며 季子 謙元亨은 訓導이다. 두 딸은 郡守 朴悌誠과 文川君 柳淑에게로 出嫁하였다.

말집 孫子인 謙若勛은 昇平君 謙若衡은 司直이며, 지차집 孫子인 謙若朴은 縣監으로 贈 參判이다. 若勛의 아들 謙粹洪은 順天君, 謙粹燈은 司直, 謙粹涵은 縣監, 謙粹潭은 府使, 謙粹濂은 牧使로 贈 判書이며, 謙若衡의 아들 謙粹幹은 司勇, 謙若朴의 아들 謙希尹은 生員, 謙希奭과 謙希呂는 參奉으로 贈 戶曹參議이며 謙希稷은 郡守, 謙希說은 兵曹參判과 京畿監司이었다.

曾孫以下부터는 더욱 繁昌하여 名官 勳業 文學이 繼續 이어져 東方의 나라 名門華閥 大族으로 되었다. 특히 其中 著名한 分은 忍百堂 謙樂春 忠孝堂 謙協, 東籬 謙允安, 竹日軒 謙光燁, 北渚 謙鑒 等이 있는데 모두 廟宇에 祭享한다. 이 어찌 거룩하다 하지 않을 수가 있겠는가!

嗚呼 公之勳功은 이미 鐵券에 실려 있으니 그 畢績이 나라나고 나라나지 않음에 있어서는 아무 加損이 없겠다. 그 出處에 대해서도 아무 痕迹이 없어서 明哲保身으로 蔽德은 쌓여 子孫들이 아주 繁昌하고 炫赫하게 피었다. 府君이야 말로 마땅히 不遷之祖로 모시고 祭享을 끊임없이 奉祀한다해도 지나침이 없겠다.

醴泉郡 葛川은 얼마 안 되는 거리 西쪽으로 가서 한 골짜기를 보면 松柏이 茂盛하여 山氣가 明秀한 知保面 葛川里 東麓 子坐原에 公의 玄宮이 계신다. 사람들은 이곳을 지날 때마다 바라보고 가보고 싶은 마음이 들도록 하니 참으로君子의 墓所임을 豈酌함이 마땅하다 하겠다.

이 地域 (九潭一圓)周邊에는 下里 愚谷書院, 竹日亭, 九潭의 菊潭精舍, 葛田의 追遠齋, 九潭의 忠孝堂亭, 市北亭, 翠潭亭 等 齋舍와 亭子가 많이 있으니 先人們께서 祖上을 追慕하고 學問을 講論하는 等君子의 길을 向한 日常의 足跡을 推想할 수가 있겠다.

멀지 않은 그 옛날까지만 해도 公의 그 後孫들이 二百餘世帶의 集姓村을 이루고 있었다하니 놀라운 일이 아닐까. 社會의 發展으로 離農等 더 나은 生業을 爲해 他地方으로 移居하여 오늘날에는 百五十餘世帶가 남아 先塋과 遺跡을 들보고 世居地를 지키며 새로운 營農法으로 特秀作物을 栽培하고 二毛作으로 耕作하여 富農의 꿈을 키워가고 있다.

花山이 높이 솟고 洛水가 맑게 흐르는 곳은君子로서 살만하다 하겠다. 그 옛날 이 九潭이란 마을을 돌아보니 터도 살만하고 風俗도 아름답기에 府君께서는 이리로 내려 오셨나보다. 山속에 숨어서 마음 놓고 거동하며 典禮를 익히고, 孝道와 友愛만으로 子孫에게 끼쳐주어 變함없이 지키도록 하셨을 것이다. 옛날에 祖上이 德을 배풀면 그 수많은 子孫들이 예뜻기때처럼 많다고 하였고 鴻儒와 名官이 잇따라 이어나서 및나는 閥閱을 이룬다고 하였다.

公께서 清白하고 禮와 義로서 分數를 지켜 後孫에게 敦睦敬親하는 敎訓을 남기셨으니, 由緒깊은 터전 九潭을 德行家風으로 發展 繁盛하여 千秋萬歲도록 傳世되기를 빈다.

癸未 2003年 冬至

南江 金榮熙 謹述

감상

先系를 大同譜에 定本한 感想

우리 氏族史가 예부터 이제까지 얼끼고 설끼어 잘못내려온 譜牒, 우리 世代에恨 많았던 譜錄을 말끔히 풀고 가야할生涯의 責務요, 道理니 後孫에게 誤謬를 또 다시 넘겨줄 수 있으랴

2004年 甲申元旦

南江 金榮熙 啓



理 事(1963. 10. 4)

宗 派 : 흥성공파 18대손 장현대부 후손 청송문종

出生地 : 경북 청송

住 所 : 경기도 용인시 상현동 상현마을 현대성우
3차아파트 281동 1003호

電 話 : 自) 031-264-9408

H·P) 017-220-0310

會社) 031-261-0999

職 業 : 사업가, 정치인

經 歷 : 공학박사(서울대)

金 鍾 熙

● 김종희 원장이 걸어온 길

- 1963. 경북 청송 출생
 - 1977. 대구범어초등학교 졸업
 - 1979. 고입검정고시 합격
 - 1983. 대구덕원고등학교 졸업
 - 1983.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토목공학과 입학
 - 1984. 망원동에서 야학 '愛隣' 운영
 - 1986. 학생운동관련 투옥(실형 1년)
 - 1987. 영등포에서 야학 '개똥이네' 운영
 - 1991. 토목설계회사(삼우기술단) 취업
 - 1995. 서울대학교 토목공학과 대학원 석사학위 수여
 - 2000. 서울대학교 토목공학과 공학박사학위 수여
 - 2000. 현대산업개발 입사(현재SOC건설경제연구원 원장)
 - 2003. 개혁국민정당 용인을지구당 신당추진위원
 - 2003. 개혁 국민정당 과학기술위원
 - 2003. 신당 추진연대회의 과학기술특위 간사
 - 2003. 열린우리당 용인을지구당창당추진위원
- 現 경실련 과학기술위원
現 수지시민연대 운영위원
現 열린우리당 용인을 지구당 정책위원
現 (주)SOC건설경제연구원 원장

사무실을 엽니다.

용인의 상처를 치료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난개발의 대명사가 되어버린 용인 서북지역 -

교통난과 환경파손이 너무나 심각해

시민들이 받고 있는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최소한의 독립적인 도시기능 마저 상실한 채

서울의 변두리로 전락할 우려마저 존재하고 있습니다.

저는 수지시민연대 운영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수지시민들과 함께 우리 용인의 서북지역의

난개발을 치료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그 결과 '수지 지하철 유치', '머내 고가차도 건설' 등

어느 정도 성과도 거두었지만

난개발의 상처가 너무나 깊어 상처를 아물게 하는데는
앞으로도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용인의 난 개발은 용인시, 경기도 등 지방정부의 힘만으로는
치료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결국 중앙정부가 나서지 않으면 결코 해결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저는 도시 환경 전문가로서 그동안의 연구 활동과 실무 경험을 살려
처방을 내어 놓겠습니다.

확실한 정책 하나, 확실한 선택하나가 바로 용인을 살리는 힘입니다.

(주)SOC건설경제연구원

원장 김 종 희 올림

지성이면 감친이라!

身命을 받친 남편의 큰 사랑에 蘇生하는 아내



전남 해남군 황산면 부곡리 477번지에 거주하는 김상
묵(중앙종친회 이사) 종친의 삶을 보고 참사람이란
천지를 감응시키고 꺼져가는 생명을 소생시키는 위
대한 힘을 발휘한다는 사실을 피부로 느끼고 이
고귀한 진리를 널리 알리고자 합니다.

필자는 김상묵씨와 박귀례씨를 나의 형님과 형수
로 어렸을 적부터 곁에서 봐 왔기 때문에 이 부부가
걸어온 일거수 일투족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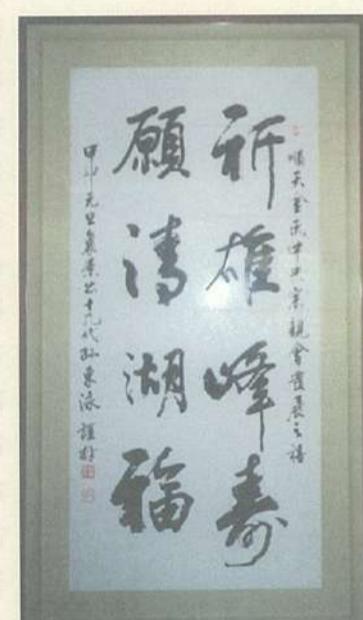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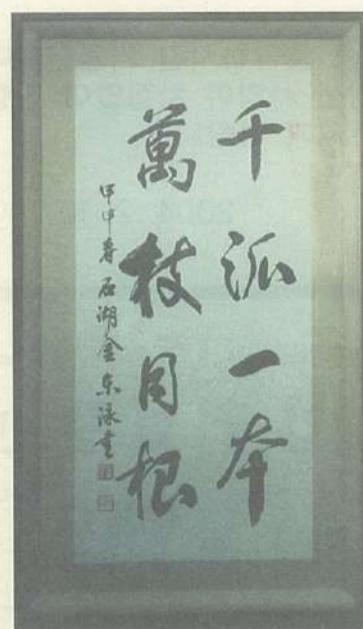
어려서부터 효성이 지극한 박귀례씨는 부모님의
(미담의 주인공) 령을 거역하지 못하고 조혼하여 시조부모 슬하에서 혹독
한 시집살이를 하면서도 아무런 불평 없이 감내하며 집안
을 꾸려 나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 김상묵은 6.25 전쟁으로 장교 입대하
여 20년 간을 조국의 방패로써 혁혁한 공을 세우고 예편하였기에 부부간의 따뜻
한 애정한번 나눌 환경이 못되었습니다.

1981년부터 남들과 같은 가정을 만들고 행복을 누리는 설계를 그렸습니다마는
1994년부터 불치의 병인 대장이 썩어 가는 병으로 병원에 같이 입원하여 가진
고생과 고통을 겪으면서도 김상묵씨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손으로 고
쳐야 된다는 일념으로 군에서 익힌 지식과 인맥을 찾아 백방으로 뛰고 또 뛰어
난치병인 대장염은 완치시켰으나 또 다시 루마チ스 관절염으로 5여년을 병원에
살다시피 하였기에 다리가 오그려 들어 걷지를 못하는 지체장애 2급이 판정되었

는데도 남편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간병하고 병원에 입원 시켜 치료를 하였지
만 별 차도가 없어 전전 궁금하던 중 2001년부터는 치매까지 겹쳐 대소변을 가
리지 못 함으로 당시 민방위강사로, 또 6.25 참전동지회 해남군회장으로, 중앙종
친회 이사 등 정력적 활동을 하든 남편 김상묵은 모든 활동을 포기하고 오직 간
병에 매달려 병원생활을 1년여 같이하다가, 병원만 의지하면 더 이상 진척이 없
을 것으로 판단하고 집으로 돌아와 약을 찾고 치료법을 알기 위하여 컴퓨터와
싸우면서 식사에서부터 생활 일절을 개선하고 대소변을 받아내면서도 한마디도
불만하지 않고 자식들에게 의지하지 않으며 오직 살아야 한다는 일념으로 건강
식품을 매일 홈페이지를 통하여 배달 받고 식이요법을 개선하는 등 10년을 하루
같이 지성으로 간병하므로 동리사람 모두가 감동함은 물론 면과 군에서도 이 소
식을 듣고 많은 동정과 칭찬이 자자하였지만 모두 겹손하고 착한 마음으로 간병
에만 전념하여 지금은 치매가 아주 좋아져 모두 의아하면서 신기하다고 처방을
알려 달라고 아우성이나 본인은 다만 방법은 오직 성의를 다하고 지성으로 간병
하는 길 외 어떤 왕도도 없다고 힘주어 말한다. 다만 아쉬운점이 있다면 활동할
수 있는 건강한 상태에서 사회 활동을 할 수 없는 것이 가장 고통스럽다고 말
한다. 하늘을 감응시키는 이 고귀한 정성은 누구나 본받을 수 없는 것이라고 이
구동성 정찬이 자자함으로 이런 열부정신은 당연히 우리 종친회의 귀감이 될 것
으로 사료됩니다.

중앙종친회 상임부회장

김상용



운장한 봉우리의 壽를 빌고(祈)
맑은 湖수와 같이 넓은 福을 請한다

여러 갈래의 派가 있어도 本은 하나이고
많은 가지가 있어도 그 뿌리는 하나이다



略歷

- 慶北 義城 產
- 嶺南大學 卒業
- 大韓民國 美術大展 入選 3回
- 大韓民國 書藝大展 特選 2回 入選 1회
- 大邱市 美術大展 連續 4回 特選, 入選 2회
- 慶北道 美術大展 連續 4回 特選(銀賞, 銅賞 受賞), 入選 多數
- 新羅美術大展 特選, 入選 6회
- 大韓民國 書藝大展 招待作家 및 理事
- 大邱市展 招待作家 및 審查委員 歷任
- 慶北道展 招待作家
- 百濟美展 招待作家
- 嶺南墨緣會展
- 嶺南書藝人聯合展
- 嶺湖南 美術交流展
- 韓國美術協會展
- 大邱書藝家會展鄉土作家 105人展(K.B.S.)
- 碩樂會展韓·中 交流展, 韓·日 美術交流展
- 大邱書藝家協會 副會長 歷任
- 嶺南書畫家協會 事務局長
- 碩樂會 會長
- 嶺南書藝人聯合展 運營委員韓國書藝協會 理事
- 韓國美術協會 幹事石湖書藝院長
- 주소 :

自宅 : 대구시 달서구 월성동 화성타운 103-1109

書宅 : 대구시 달서구 본동 225-1 (松林백화점 4층)

TEL : 自宅/642-5944 書宅/622-8174

제39호 宗報 訂正

1) 5면 우측 하단

相容	相伯	死亡	朴春滿	姜允植	42世
澈瑾 煥煥	爽英 煥煥	貞淑 淑淑	仁淑 淑淑	惠淑 淑淑	實淑 淑淑
規 淑					43世
垠 玉	垠 成				44世



相容	相伯	死亡	朴春滿	姜允植	42世
澈瑾 煥煥	爽英 煥煥	貞淑 淑淑	仁淑 淑淑	惠淑 淑淑	賢淑 淑淑
振 淑					43世
垠 玉	垠 成				44世

廣 告

中央宗親會의 無窮한 發展과 宗親들의 家庭에
祖上님들의 蔭德이 充滿 하시기를 祈願 합니다

國內 最大 김치 專門 메이커

(株) 양지은 食品

代表理事 金 建 鎬

전화 : (02) 430-0231~8

FAX : (031) 797-1597

www.yangjieun.com

양지은식품



조의말씀

종친 여러분들의 가정에 조상의 음덕이 항상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중앙 종친회가 계획 추진하고 있는 모든 위선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되고, 종친회의 운영이 좀 더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년회비를 조속히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4. 2. 10

중앙종친회

회비 입금 현황(인명부록)

2003년 12월 1일 ~ 2004년 1월 31일

대구종회-절제공파 * 납2년7월5일 300,000원

부회장

김두원	* 납3년12월31일	광주광역시 동구
김부원	* 납4년01월12일	서울특별시 강남구
김행엽	* 납4년01월16일	서울특별시 강남구

고문

김명규	* 납3년12월29일	울산광역시 남구
-----	-------------	----------

운영위원

김광홍	* 납4년01월06일	서울특별시 은평구
-----	-------------	-----------

이사

김명수	* 납3년12월29일	서울특별시 동작구
김상윤	* 납3년12월30일	전라남도 해남군
김구연	* 납4년01월26일	서울특별시 강서구
김상기	* 납4년01월30일	광주광역시 동구

대의원

김동원	* 납4년01월27일	서울특별시 구로구
김강영	* 납3년12월26일	경상북도 문경시

39호누락자

김상묵	* 납3년09월22일	전라남도 해남군
-----	-------------	----------

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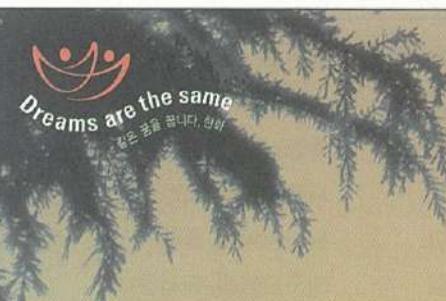
김동근	* 납3년12월03일	경기도 고양시
김동수	* 납3년12월05일	경기도 고양시
김의	* 납3년12월05일	경상북도 안동시
김상염	* 납3년12월11일	충청북도 청주시
김한태	* 납3년12월15일	경기도 수원시
김한연	* 납3년12월17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김상길	* 납3년12월18일	서울특별시 은평구
김종환	* 납3년12월18일	강원도 원주시
김규삼	* 납3년12월22일	서울특별시 강남구
김성수	* 납3년12월22일	경상북도 의성군
김동석	* 납3년12월23일	경상북도 청송군
김희연	* 납3년12월23일	경상북도 상주시
김길원	* 납3년12월24일	전라남도 담양군
김동희	* 납3년12월24일	경상북도 안동시
김병철	* 납3년12월24일	부산광역시 영도구
김상용	* 납3년12월24일	제주도 제주시
김상현	* 납3년12월24일	울산광역시 중구
김재용	* 납3년12월24일	경기도 성남시
김중희	* 납3년12월24일	광주광역시 서구
김찬정	* 납3년12월24일	충청남도 부여군

김천환	* 납3년12월24일	대구광역시 북구
김홍배	* 납3년12월24일	광주광역시 북구
김관성	* 납3년12월26일	서울특별시 중구
김광도	* 납3년12월26일	강원도 양구군
김대근	* 납3년12월26일	경기도 고양시
김대석	* 납3년12월26일	충청남도 보령시
김동국	* 납3년12월26일	서울특별시 송파구
김동영	* 납3년12월26일	서울특별시 강동구
김동옥	* 납3년12월26일	부산광역시 연제구
김세희	* 납3년12월26일	인천광역시 남구
김영익	* 납3년12월26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김용성	* 납3년12월26일	서울특별시 구로구
김용환	* 납3년12월26일	서울특별시 동작구
김운용	* 납3년12월26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김원남	* 납3년12월26일	강원도 평창군
김원섭	* 납3년12월26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김인영	* 납3년12월26일	서울특별시 강북구
김일환	* 납3년12월26일	대구광역시 수성구
김재극	* 납3년12월26일	경기도 의정부시
김종영	* 납3년12월26일	경기도 가평군
김창수	* 납3년12월26일	광주광역시 동구
김태연	* 납3년12월26일	충청북도 청주시
김형연	* 납3년12월26일	인천광역시 연수구
김경동	* 납3년12월29일	경상북도 영천시
김공남	* 납3년12월29일	광주광역시 광산구
김광재	* 납3년12월29일	부산시 진구
김녹산	* 납3년12월29일	강원도 인제군
김동민	* 납3년12월29일	경기도 이천시
김동철	* 납3년12월29일	대구광역시 북구
김병한	* 납3년12월29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김승환	* 납3년12월29일	경상북도 상주시
김영낙	* 납3년12월29일	울산광역시 남구
김원희	* 납3년12월29일	경기도 화성군
김종희	* 납3년12월29일	광주광역시 북구
김지균	* 납3년12월29일	인천광역시 부평구
김치연	* 납3년12월29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김형연	* 납3년12월29일	경상북도 포항시
김경영	* 납3년12월30일	경기도 과천시
김대연	* 납3년12월30일	경상북도 구미시
김동식	* 납3년12월30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김동주	* 납3년12월30일	부산광역시 기장군	김동훈	* 납4년01월12일	경기도 고양시
김동호	* 납3년12월30일	서울특별시 강남구	김부연	* 납4년01월12일	경기도 수원시
김만환	* 납3년12월30일	서울특별시 강남구	김영환	* 납4년01월12일	충청남도 보령시
김병남	* 납3년12월30일	경기도 김포시	김주운	* 납4년01월12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김복어	* 납3년12월30일	경상북도 영천시	김천연	* 납4년01월12일	울산광역시 종구
김석연	* 납3년12월30일	경기도 안산시	김진권	* 납4년01월13일	대구광역시 달서구
김선균	* 납3년12월30일	강원도 춘천시	김진출	* 납4년01월13일	경기도 안산시
김성권	* 납3년12월30일	대구광역시 서구	김형옥	* 납4년01월13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김영록	* 납3년12월30일	서울특별시 용산구	김명환	* 납4년01월14일	충청남도 부여군
김인성	* 납3년12월30일	경기도 의정부시	김학주	* 납4년01월14일	경기도 남양주시
김인태	* 납3년12월30일	충청남도 보령시	김무원	* 납4년01월15일	전라남도 해남군
김재명	* 납3년12월30일	제주도 서귀포시	김재의	* 납4년01월16일	경기도 수원시
김중식	* 납3년12월30일	경기도 남양주시	김해정	* 납4년01월19일	서울특별시 중랑구
김창환	* 납3년12월30일	경기도 용인시	김규수	* 납4년01월20일	전라남도 해남군
김태석	* 납3년12월30일	충청남도 보령시	김덕규	* 납4년01월20일	경기도 안양시
김토생	* 납3년12월30일	충청북도 제천시	김갑점	* 납4년01월26일	부산광역시 서구
김호윤	* 납3년12월30일	울산광역시 중구	김교연	* 납4년01월26일	경기도 고양시
김갑균	* 납3년12월31일	전라남도 익산시	김남술	* 납4년01월26일	전라남도 해남군
김건호	* 납3년12월31일	서울특별시 강남구	김동호	* 납4년01월26일	충청북도 충주시
김동경	* 납3년12월31일	경기도 고양시	김만형	* 납4년01월26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김동섭	* 납3년12월31일	경상북도 봉화군	김병현	* 납4년01월26일	전라남도 영암군
김동주	* 납3년12월31일	경상남도 양산시	김상옥	* 납4년01월26일	전라남도 순천시
김병렬	* 납3년12월31일	경기도 이천시	김정희	* 납4년01월26일	서울특별시 양천구
김병완	* 납3년12월31일	대구광역시 서구	김판영	* 납4년01월26일	전라남도 담양군
김상덕	* 납3년12월31일	서울특별시 양천구	김호연	* 납4년01월26일	서울특별시 종로구
김상원	* 납3년12월31일	서울특별시 강남구	김원석	* 납4년01월27일	광주광역시 북구
김재수	* 납3년12월31일	전라북도 전주시	김인식	* 납4년01월27일	경기도 용인시
김준섭	* 납3년12월31일	서울특별시 용산구	김병렬	* 납4년01월28일	대전광역시 서구
김지호	* 납3년12월31일	서울특별시 용산구	김호진	* 납4년01월28일	경상남도 진해시
김태연	* 납3년12월31일	경기도 광주군	김동국	* 납4년01월29일	경기도 고양시
김호철	* 납3년12월31일	서울특별시 도봉구	김동열	* 납4년01월29일	경기도 이천시
김길원	* 납4년01월02일	충청남도 서산시	김동주	* 납4년01월29일	서울특별시 성북구
김동환	* 납4년01월02일	경기도 안양시	김선원	* 납4년01월29일	대구광역시 수성구
김명석	* 납4년01월02일	경기도 용인시	김영환	* 납4년01월29일	전라북도 정읍시
김영환	* 납4년01월02일	서울특별시 관악구	김현만	* 납4년01월29일	서울특별시 성북구
김한용	* 납4년01월02일	경기도 수원시	김석현	* 납4년01월30일	인천광역시 남동구
김환	* 납4년01월02일	전라남도 목포시	김영환	* 납4년01월30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김동삼	* 납4년01월05일	경기도 하남시	김태연	* 납4년01월30일	서울특별시 노원구
김명환	* 납4년01월05일	서울특별시 강서구			
김병도	* 납4년01월05일	인천광역시 서구			
김상봉	* 납4년01월05일	서울특별시 마포구			
김상찬	* 납4년01월05일	경기도 고양시			
김상철	* 납4년01월05일	경기도 성남시			
김종수	* 납4년01월05일	서울특별시 강동구			
김창수	* 납4년01월05일	경기도 수원시			
김한섭	* 납4년01월05일	전라남도 해남군			
김방현	* 납4년01월06일	경상북도 안동시			
김세덕	* 납4년01월06일	인천광역시 부평구			
김영열	* 납4년01월06일	강원도 횡성군			
김연만	* 납4년01월07일	충청북도 청원군			
김복귀	* 납4년01월08일	충청북도 충주시			
김상준	* 납4년01월08일	인천광역시 서구			
김제연	* 납4년01월08일	경기도 광주군			
김왕희	* 납4년01월09일	울산광역시 동구			
김종탁	* 납4년01월09일	서울특별시 마포구			

무명인

- *03년12월24일 우체국/대치 김창엽
- *03년12월26일 농협/가은 김만희
- *03년12월26일 농협/구성영원
- *03년12월29일 농협/논산서부
- *03년12월29일 우체국/부산초량
- *03년12월29일 새마을/봉방
- *03년12월30일 농협/영주
- *03년12월30일 농협/청천
- *03년12월30일 농협/진접 남양주
- *03년12월31일 농협/해남
- *04년01월05일 농협/대월
- *04년01월06일 농협/외동 모화
- *04년01월07일 농협/화성 송산
- *04년01월09일 새마을금고/사당
- *04년01월15일 농협/김포
- *04년01월26일 농협/도봉



모두가 '행복'이라 부르는 곳

매일 아침 당신이 처음 창을 여는 곳

당신의 가장 아름다운 아내가

당신의 하루를 위해 맛있는 아침을 준비하는 곳

하루 종일 당신을 생각하는 곳

당신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당신의 아이들이 뛰어 노는 곳

당신의 웃음이 가장 밝아 보이는 곳

오늘보다 더 행복한 내일을 준비하는 곳

당신과 당신이 사랑하는 아내가

밤새 마주앉아 사랑을 이야기하는 곳

더 행복한 내일을 위해 잠시 불을 끄는 곳

모두가 '행복'이라 부르는 곳에

한화종합화학이 있습니다



품격있는 생활공간에서 아름다운 행복공간까지
한화종합화학은 고객의 행복한 생활을 디자인합니다



창호사업

다양한 디자인과 앞서가는 기능으로 인테리어의 새로운 감각을 느낄 수 있습니다

상재사업

바닥장식제의 대표주자로 주택용과 상업용에서 고객의 감각과 건강을 지켜드립니다

장식자재사업

우수한 품질의 표면마감제와 인테리어용 인조대리석 등이 생활의 품격을 더해드립니다

부품사업

자동차 내장재에서 산업자재에 이르기까지 고객의 24시간 언제 어디서나 함께 합니다